

歐美社會事業哲學의 背景에 對한 試考

—基督敎의 本質을 中心하여—

金 德 俊

〈江南社會福祉學校 敎授〉

A Study on the Background of the Western Philosophy of Social Work —the Essence of Christianity—

by Prof. Dock-Joon Kim, Ph. D.
Kangnam College of Social Welfare

〈목 차〉

I. 머리말

II. 맺는 말

III. 기독교의 본질

I. 머리말

産業革命(Industrial Revolution)에 의한 封建社會制度의 崩壞와 初期 資本主義制度에서 結果된 暗澹한 狀況은 19世紀 中葉의 英國 基督敎界에 새로운 運動을 일으켰으니 그것은 즉 英國敎會의 牧師였던 F. D. Maurice와 Charles Kingsley 그리고 辯護士였던 J. M. Ludlow에 의해서 主導되었고 當時 貴族出身만 다녔던 Cambridge와 Oxford 兩大學의 在學生들이 加擔한 基督敎社會主義運動이다. 이 運動이 美國敎界에 影響을 주어서 일어난 운동이 「社會福音」(social gospel)運動이다. 이 社會福音은 美國 經濟狀態에 대한 基督敎의 關係에 가장 뛰어난 貢獻을 했지만 뚜렷한 神學的 體系나 信仰的 體系는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所信은 「社會救援에 等閑視한 채 個人救援에 사로잡힌 個人主義的 宗教는 産業化하고 있는 文化속에서 사람들의 生活을 形成하고 있는 諸勢力을 모르는 채 지나가고 있다」¹⁾고 主張하며 社會全體의 救援을 強調한 바 있다. 이 兩大運動이 美國의 聯邦敎會協議會(Federal Council of Churches)*에 影響을 주어 1932년에 조직된 것이 社會信條委員會(Committee for Social Creed)이다.

한편 1925년 Sweden에서 출발한 世界敎會協議會(World Council of Churches)는 1948년 WCC Amsterdam大會에서 「責任社會」(responsible society)를 論하고 그 標準確立의 必

1) Victor Obenhouse, "Ethics for An Industrial Age," A Christian Inquiry, New York, Wiley and Sons, 1967, p. 20.

* 現在の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責任을 절실히 느껴 「責任社會」란 곧 그 社會의 自由가 正義와 公共秩序에 대한 義務를 認定하는 사람들의 自由인 것과 또한 政治的 權力과 經濟的 勢力을 掌握한 者들이 하나님과 民衆(政治와 經濟는 이 民衆福利에 影響을 끼치는 것인데)에 대하여 그 實權을 行事할 경우에 있어서 責任的이어야 한다는 것을 意味한다.²⁾라고 責任社會를 規定한 바 있다.

이 Amsterdam大會를 거쳐 1954年 WCC의 Evanston大會時 이 責任社會에 關한 아세아 地域研究協議會가 發起된 바 있다³⁾.

요컨대 英國에서 發端한 基督教社會主義運動은 美國의 社會福音運動과 全國教會協議會를 통한 運動을 거쳐 WCC의 「責任社會」運動으로 展開되고 있는 것이며 信仰과 行動의 一致 運動으로 퍼지고 있는 것이다. 이 運動이 歐美의 社會事業發展과 不可分離의 關係가 있음도 勿論이다. 그 理由는 歐美社會事業의 哲學도, 또 이 運動의 核心的 原理도 그 背景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換言하면, 同一한 基督教의 本質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基督教의 本質은 하나님의 創造와 그 人間觀에서 엿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筆者는 人間의 尊嚴性의 理念, Persona, 原罪와 贖罪, 贖罪의 社會的 意義, 歷史性과 社會性, 및 人間과 社會의 目的 등의 順으로 基督教의 本質을 要約하여 보고자 한다.

II. 基督教의 本質

가) 人間의 尊嚴性의 理念

人格尊重의 起源은 유대民族의 信仰에서 시작하여 그것을 이어받은 基督教에 의해서 發展된 思想이다. 舊約聖書의 創世記에 의하면 人間은 하나님의 形像에 따라서 創造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人間은 하나님의 付託에 服從하여 被造界를 다스리는 힘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 사상은 自然히 人間을 被造界의 頂點에 세운다. 이른바 萬物의 靈長으로서 自然界에 君臨하는 것이다⁴⁾. 더우기 이 思想은 新約聖書에 나타난 三位一體의 信仰과 結付하여 聖父와 聖子와 聖神과의 位格 즉 하나님의 位格이 人間의 位格과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⁵⁾.

이 思考는 하나님과 人間사이에는 無限한 距離가 있다는 것을 認定하면서도 人間을 하나님이 계시는 靈의 世界에 사는 存在로서 肯定하였다. 人間은 다리로 地上의 物質을 디디면서 손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는 存在이다⁶⁾.

즉, 人間이 무슨 가담으로 自尊心을 가질 수 있는지 또 人間이 무슨 가담으로 서로의 尊

2) Walter G. Muelder, "Foundation of The Responsible Society;" 張炳日譯, 基督教社會政策原論 서울, 大韓基督教會, 1966, p. 19.

3) 金德俊, "專門社會事業과 產業福祉," 서울, 韓國社會福祉研究所, 1975, pp. 18-22. 參照

4) 創世記 1:26-28.

5) "Paul Henry Saint Augustin on Personality," New York, 1960, p. 39.

6) Jean Mouroux, "Sens Chrétien de l'homme," Paris, 1947, p. 109.

嚴性を 確信하지 않으면 안되는지의 基本的 理念을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이다.

나) Persona

Persona란 말은 그리스어의 Personando(소리가 통한다)에서 그 語源을 찾는다 하지만 Persona란 말을 하나님에 대하여 쓴 예는 舊約聖書는 물론 新約聖書에서도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말은 自存의 主體를 表現하는데 便宜한 말이다. 좁게 人間에게 限해서 人格이라고 말하기 보다 널리 靈性的 主體에 꼭 들어맞는 말로서 位格이라고 번역하는 편이 適當한 말이다, 하겠다. 그런데 3世紀에 들어 가면서 敎會의 學者들은 三位一體이신 하나님의 位格의 各各을 表現하기 위해서 이 말을 쓰게 되었다.

聖 Augustin은 413년에 붓을 든지 13년의 研鑽 끝에 이룩한 大著 「神國論」(De Civitate Dei)의 一節에서 人間이 하나님의 影像이라는 緣由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들은 우리들 自身속에서 하나님의 影像을 認定한다. 즉 至聖하신 三位一體의 影像이다. 그것은 하나님과 平等하다는 말은 아니다. 훨씬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더불어 永遠한 것은 아니다.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과 同質의 것은 아니다. —— 그러나 하나님의 撮影인 다른 은갓 것에 比해서 그 本性에 있어서 하나님에 가까운 것이다. 또한 더욱 하나님의 眞은 모습으로 가까와 질 수 있도록 감싸 주어야 할 것이다. 그 理由는 存在한다는 面에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같으며 또한 하나님과 같이 自己의 存在함을 알고 存在한다는 것과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과는 기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바 있다.

最後의 邏—마哲學者이며 最初의 스코라神學者였다고 하는 Boethius(480?—524)는 Persona를 定義하여 理性을 具備한 獨自의 實體⁸⁾라고 말했으며 Welch도 그의 정의를 부연하면서 Persona는 3개의 要件을 具備하고 있다고 했다. 그 첫째는 實體 즉 自立의 存在이다. 그 스스로가 存在하는 것이다. 단순히 他의 것에 依存하는 것이 아니다. 그 둘째는 個別性を 가지는 獨自의 存在이다. 그 自體에 있어서 나눌 수 없는 것이며 同時에 他의 은갓 것으로 부터 나누어진 것이다. 他의 것의 部分이 아니다. 他의 것에 包攝되거나 또는 共通한 存在를 保有하는 것도 아니다. 그 셋째는 理性이다. 즉 Persona란 理性을 具備한 自立의 存在이다⁹⁾라고 설명한다. 즉, 被造物中에서는 靈長이요 創造主이신 하나님의 다음에 위치하는 位格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人間인 것이다.

7) Saint Augustin, "De Civitate Dei," XI, 26, Oeuvres de Saint Augustin, 35, Deslée de Brouwer, Paris, 1959, p. 112. —"The City of God," tr. Marcus Dods, New York, 1950, p. 370.

8) Anicius Manlius Severinus Boethius, "The Theological Tractates," (The Loeb Classical Library) London, 1953, p. 84.

9) Claude Welch, In This Name, "The Doctrine of the Trinity in Contemporary Theology" New York, 1952, p. 108

다) 原罪와 贖罪

基督敎의 하나님은 永遠한 世界에 계시는 超越的 存在인 同時에 또한 歷史의 世界에 介入하여 創造를 계속하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宇宙의 萬象이 尙今도 하나님의 行하심에 의한 進化의 途上에 있다고 해석하여도 아무런 疑問도 없다.

人間이 원숭이와 同祖의 動物에서 進化했는지의 與否의 問題는 宗教가 關與할 바는 아니다. 基督敎에서 重要的 것은 地上에 出現할 때까지 如何한 生物學的 道程을 걸었든지 간에 어느날 理性的 存在로서 自主的으로 善惡의 選擇을 하기에 이르렀다는 事實이다. 그리하여 그 取捨를 잘못된 不幸한 結果가 末世에 이르기까지 全人類에 미치고 있다는 것이 基督敎의 信仰이다¹⁰⁾.

創世記에 의하면 人祖아담은 完全한 人間으로서 自由를 賦與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恩寵을 입어 超自然의 生命을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 그 自由로 因해서 하나님을 背反하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과 人間과의 關係에 금이 갔다. 人間은 하나님과 하나였다. 그런데 人祖의 墮落에 의해서 그 一致가 깨어졌다. 이것은 하나님과 全人類와의 疎遠과 間隔이 있었다. 그리하여, 人類는 子子孫孫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罪의 傷痕을 지고 낡음을 받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것이 人間의 原罪라는 것이다.

人間은 原罪의 무거운 짐을 지면서 世上을 방랑하는 種族이 되었다. 天國의 門은 닫혀졌다. 이렇게 되어보니 人類最大의 問題는 하나님과의 一致를 되돌려서 人間을 하나님의 아들들의 座에 앉게 하여 다시 한번 天國의 門을 여는 일이었다. 이것이 즉 Atonement의 問題이다¹¹⁾.

人間은 自己 自身이 만드는 힘을 가지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도 이것을 破壞하는 힘은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사람을 죽일 수는 있지만 죽인 다음에 살게는 할 수 없다. 이것은 不幸한 힘이다. 그 가장 뚜렷한 예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一致를 破壞한 일이었다. 人間은 이것을 回復하는 길을 몰랐었다. 이것을 原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힘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앞에서 우리는 自主的인 存在로서의 人間을 보아 왔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 自主的인 存在로서의 人間이 하나님과의 約束을 拒逆하고 그로 因한 原罪까지도 自招한 自主自決的인 人間の 모습을 如實히 본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人間이면 어느 누구에게나 均等하게 주신 絶對的 自由이다.

하나님과 人間과의 關係를 原狀으로 되돌린다는 일은 처음에 이것을 세우는 것 보다도 複雜한 것이었다. 神, 人間の 關係를 破壞한 그 틈사이에 人間이 犯한 「罪」라는 새로운 要素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人間은 단순히 제로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이아스가

10) 岩下壯, “中世哲學思想史研究” p. 38.

11) 飯野幡司, “キリスト敎の社會觀,” 東京, 日本學術振興會, 昭和 43年, pp. 139-40. 參照

되었다. 無一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거운 빛돈을 지었다. 이 빛돈을 물고 마이너스에 꾸기 위해서는 오로지 하나님과 人間과를 「하나로 한다」뿐이 아니라 「罪의 報償」을 다할 것을 必要로 했다. 그리스도에 의한 十字架의 犧牲은 그 때문에 바쳐진 것이다. 그러므로, Atonement(贖罪)를 Redemption(救援)과 同義로 하여 贖罪라고 번역하여도 통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人類의 最初의 罪業(科)에 의해서 傷處를 입은 人間은 이 罪의 報償을 다할 힘을 남기지 않았다. 傷한 人間이 傷하지 아니한 報償을 바칠 수는 없다. 人間을 代身해서 人間을 위하여 이것을 다한 이가 完全한 人間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셨다.

要件에 自主 自立的인 存在인 人間이 賦與받은 絶對的 自由를 濫用하여 原罪를 自招하였으니 이 原罪를 代贖한 그리스도의 贖罪의 作業에 人間이 自主적으로 保有하고 있는 自由를 善用하여 自己決定을 내려서 同參하는 길 밖에는 「하나님과 하나」로 될 수 없으며 이 길이야말로 人間의 道標이며 人間의 目的인 最高善이다.

라) 贖罪의 社會的 意義

그리스도는 弟子들이 모인 곳에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앞에 세우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¹²⁾ 이 말씀에 따르던 어린이는 그리스도와 하나이며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하나이다. 즉, 하나님과 人間은 相通하여 連帶의 關係에 있다. 하나님은 人間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人間에게도 人間을 사랑하는 것을 命하신다. 人間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人間도 사랑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人間을 사랑하는 일이며 人間을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하나님과 人間과는 連帶하여 나누어 저서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본 바있는 Atonement라는 말은 그 語根을 分解하여 그 뜻을 求한다면 Atonement는 At-one-ment이다. 「하나로 한다」라는 뜻이다. 하나님과 사람이 和合하여 하나로 된다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비는 사람 한사람 한사람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 뿐이 아니다. 人類가 全體로서 하나님에게 歸一하며 하나님께 連結된다는 일이다. 人類가 全體로서 聖化된다는 것을 意味한다. 하나님은 超越者이시면서 우리들 속에 內在하시며 우리도 또한 하나님과 하나로 되어 하나님의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모두 同等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서로 兄弟姊妹이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된다¹³⁾고 Sheed는 말한다.

하나님은 땅과 바다와 하늘을 創造하시고 그 속에서 萬物을 創造하신 다음에 人間을 만

12) 마가복음 9: 33—37.

13) F. J. Sheed, "Theology and Sanitv." pp. 160—163

드시고 그에게 萬物을 委任하셨지만 그로부터 拒逆을 당하셨다. 그래도 하나님은 人間을 사랑하시고 그와 하나가 되시기를 願하셨기 때문에 神格을 가진 아들들을 人間의 몸으로 身시켜 人間의 罪를 代贖하셨다. 이것이 絕對的 사랑이다. 그러므로, 「네 원수를 사랑히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다. 이 길만이 하나님과 人間을 하나로 하는 길이다. 그러므로, 사랑은 代贖의 本質이며 合一의 本質이며 最高善의 本質이다.

그러므로, 가정의 平和도, 이웃과의 平和도, 민족의 平和도, 그리고 나라와 나라간의 平和도 이 길에서 벗어나서 생각할 수 없으며 代贖의 길만이 平和의 길임을 알 수 있다.

마) 歷史性과 社會性

基督敎는 人間을 超越하는 人間의 天命을 믿으며 또한 그것이 人間 共同의 天命인 것 믿는다. 대체로 世界의 歷史는 이 天命에 應答하는 準備이다. 하나님의 攝理와 計劃은 世의 처음부터 世上의 終末에 이르기까지 被造界에 許諾된 自由의 은갓 抵抗에도 不拘하 定해진 段階를 밟으며 끝은 길을 나가고 있다. 託身의 奧義가 구름기둥으로 되고 불기둥으로 되어 人類의 前途에 높이 서 있다. 그러므로 基督敎의 敎義에 있어서는 그 社會性과 불어 그 歷史性이 世界를 움직이는 수레의 두 개의 바퀴로서 극히 중요한 意義를 가진다. 하나님이 주시는 救援은 全人類의 救援이다. 그리하여, 人類는 時間속에서 生存하며 發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救援은 自然히 歷史的 形態를 求한다. 그것이 즉 「나그네의 敎會」 歷史이며 그리스도에 의한 人間風靡의 歷史이다.¹⁴⁾

人間은 永遠한 世界에 떨어 올라가기 위해서 時間의 발발침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이 時間의 世界를 바르게 사는 길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도 또한 이 法則에 陷었다. 그는 우리 人間을 時間의 世界에서 解放하기 위하여 이 世界에 왔다. 그러나, 그 解放은 時間을 手段으로 하여 행하여졌다. 이것이 즉 託身의 奧義이다. 그러므로, 대체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者는 그리스도의 模範을 배워서 時間속에서 살면서 歷史의 約束에 服從하면서 時間을 超越한 永遠한 世界를 求하지 않으면 안된다. 손을 들어 그가 求하는 永遠은 時間의 世界에 있어서 머나 먼 過去와 連結하며 또한 測量할 수도 없는 아득한 未來와 連結한다. 아니 人間이야말로 時間의 世界와 永遠한 世界를 連結하는 사다리이다.¹⁵⁾ 換言하면, 人間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으므로 永遠한 世界와 連結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時間에 制限을 받는다. 그러므로, 그는 이 時間속에서 그의 맡은바 役割을 忠實히 하여야 한다. 마치 그리스도가 肉으로 化身하여 時間속에서 代身하여 時間속에서 代贖의 責任을 다하신 것처럼 이것이 바로 基督敎의 歷史性이다.

14) 假島, op. cit., pp. 114—5. 참조

15) Ibid.

바) 人間과 社會의 目的

모든 存在는 目的이 賦與되고 있다. 그 目的을 完成하는 일이 그 自體로서의 善이다. 永遠法은 萬物에게 그 本來의 目的을 보여 주시는 하나님의 觀知의 表現이다. 모든 被造物은 이 永遠法을 나누어 가지므로써 하여야 할 行動과 達成하여 가야할 目的에 대한 自己 本來의 傾向을 賦與받고 있다.¹⁶⁾ 善이란 存在가 그 目的을 向하여 가는 일이다. 善은 目的의 本質에 合致하나 惡은 그 反對이다. 萬物은 善의 本質을 가지는 目的을 위해서 存在한다. 따라서 實踐理性에 있어서의 第一의 原理는 善이란 萬物이 追求하는 것이라는 말이다.¹⁷⁾ 善이란 各自에게 許諾된 最高의 存在를 우러러 向하는 일이다. 그리하여 森羅萬相의 窮極의 原因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그 歸着이신 고로 萬物은 各自의 길에서 하나님에게 歸向하는 일이 一切의 被造物에게는 最高의 善이며 또한 自己完成의 極致이다.¹⁸⁾

즉, 高貴한 尊嚴性을 지닌 人間은 그의 原罪에도 不拘하고 그리스도의 贖罪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게 되었다. 原罪로 因하여 世上은 暗黒과 腐敗로 뒤덮였다. 暗黒과 腐敗의 除去는 「빛」과 「소금」의 役割이 必須條件이다. 그리스도의 十字架는 이 「빛」과 「소금」의 役割이었다. 그러므로, 人間과 社會의 目的은 「빛」과 「소금」으로 하는 贖罪의 隊列에 同參하여 「共通善」「最高善」을 追求하는 일이라 하겠다.

最高의 共通善이 하나님인 것은 勿論이다. 온갖 것은 오로지 하나의 目的을 향하여 秩序를 잡히고 있다. 모든 秩序는 오로지 하나의 善에 歸向한다. 그것은 하나님¹⁹⁾ 이시기 때문이다.

人間의 目的을 생각하면서 筆者는 Kagawa*(賀川豊彦)가 50年前에 社會事業과 關聯지으면서 남긴 그 自身の 人生의 目的을 잊을 수가 없다. 즉, 그의 宗教는 兩面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生命의 本質과 生命의 表現의 兩側面이다. 本質만을 파고 돌려는 者는 表現의 世界를 잊어 버리고 神秘와 冥想과 神學과 儀禮(形式)에 盡力한다.

“그러나 生命의 表現을 생각하는 者는 사랑의 行動에 의해서만이 生命의 本質을 探知할 수 있음을 배운다. 新約 요한의 첫째 편지 著者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²⁰⁾ 라고 記述하고 있으나 사랑의 行動을 모르는 者가 하나님은 本質的 사랑이심을 알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이다. ……社會境遇의 온갖 不合理를 訂正하고 生命 勞動 人格에 대한 온갖 缺陷을 修正하며 救濟하는 것에 의해서 宇宙 本質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認識하는 可能性이 容易하게 된다. 그러므로, 社會事業을 가지

16)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ca," I—II, Q. 93, Art. 1.

17) Ibid., 94, Art. 2.

18) Thomas Aquinas, "Summa Contra Gentiles," Bk. III, Pt. I, Chs. 24, 25. —Sum. Theol., I, Q. 5, Art. 1; Q. 6, Art. 1.

19) Ibid., II, Pt. I, Ch. 17.

* 賀川豊彦氏は日本이 낳은 世界的 基督敎 指導者이며 社會事業家였다.

20) 요한의 첫째 편지, 4:8.

는 宗教運動은 社會事業과 宗教運動의 사이에는 二元的 差異를 認定하지 않는다. 生의
 갖 行動이 宗教運動이며 冥想과 祈禱만이 宗教運動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여기에 本質
 부터 表現에의 化身(The Incarnation)의 運動이 있다. ……

……一切의 神學과 經典은 過去를 말하는 허튼 소리는 아니다. 그것은 救하려는 意
 人間的說明이다. 이 宇宙的 意志를 基礎로 하여서만이 眞實한 社會事業은 可能하다. 宇宙
 意志의 發露를 認識하지 않는 온갖 人間行動은 泡沫과 같이 꺼져 간다. ……

……나는 永遠한 길, 즉 宗教에서 生의 現象에의 길을 찾아 宗教에서 社會事業에의 길을
 홀로 조용히 걸어 간다. 그리하여, 社會事業에서 宗教를 다시보고 救하려는 宇宙意志의
 다른 計劃의 發露에 사랑의 하나님을 認識하며 宇宙 그 自體가 사랑이라는 것을 意識하
 고 노력한다.”²¹⁾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方向을 明示하고 있는 것이다.

빛으로의 하나님의 影像대로 創造된 人間, 하나님의 位格 다음에 위치하면서 自主 自存 自
 의 人間에서 人間의 尊嚴性を 찾을 수 있으며, 森羅萬相의 支配를 委任받은 人間은 自己
 自由決定에 의해서 하나님을 背信하여 神人關係를 파괴했으나 人間의 힘으로는 原狀回復
 할 수 없었던 고로 人間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스스로를 化身하여 人間의 罪를 代贖하셔
 十字架를 지셨으니, 여기서 人間은 原罪의 무서움과 그 原罪를 代贖하기 위한 十字架의
 對的 사랑을 알게 되었으며, 그리므로 人間은 時間的으로 制限받는 짧은 生을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永遠한 創造의 作業에 自由로 自己決定을 내려서 同參하여 그리스도
 도됨하여 贖罪의 길을 걸어 간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복음을 믿고 실천한다. 이것이 基督教의 本質이요 여기에 歐美 社會事業의 足蹟의 源泉
 있는 것이다.

Ⅲ. 맺는 말

以上에서 우리는 基督教社會主義運動에서 시작하여 WCC의 「責任社會」에 이르는 過程을
 엮은 등시에 그들 운동의 背景인 基督教의 本質에 대해서도 요약하여 본 바 있다.

歐美의 社會事業의 哲學 또는 原理는 무엇이냐고 할 때에 우리는 (1) 人間의 尊嚴性 確
 信, (2) 自己決定權, (3) 機會均等, 및 (4) 社會的 責任등을 곧 잘 든다. 그러나, 이와 같
 은 諸原理에 대한 確信은 위에서 든 여러 運動의 背景의 核心인 基督教의 本質을 理解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수용할 때에 비로소 確信할 수 있을 것이며, 確信하는 데서 實踐이 있
 는 것이다. 따라서 歐美社會事業의 歷史는 그 哲學을 벗어나서 理解할 수 없으며 그 哲學
 은 基督教의 本質을 두고 理解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면 多幸이겠다.

21) 賀川豐彥, “社會事業と宗教”, 社會事業研究, 第16卷 第5號 昭和 3年(1928).

参 考 文 献

- 賀川豊彦, “社会事業と宗教運動”, 社会事業研究, 第16卷 第5号(昭和34年) 1928.
- 金徳俊, “専門社会事業と産業福祉”, 서울, 韓國社会福祉研究所, 1975年
- 飯野幡司, “キリスト教の社会観”, 東京, 日本學術振興會, 昭和43年(1968)
- Aquinas, Thomas, “Summa Theologica.”
- Boethius, A. M. S., “The Theological Tractates,”(The Loeb Classical Library) London, 1953.
- Henry, Paul, “Saint Augustin on Personality,” New York, 1960.
- Muelder, Walter G., “Foundation of the Responsible Society,” 張炳日譯, 基督教社会政策原論 大韓基督教會, 1966.
- Saint Augustin, “De Civitate Dei,”——The City of God, tr. Marcus Dods, New York, 1950.
- Sheed, F. J., “Theology and Sanity.”
- Welch, Claude, In “This Name, The Doctrine of The Trinity in Contemporary Theology,” 1952.